

關野貞과 건축문화재 보존

- 한국건축문화재 보존과의 연관관계를 중심으로 -

姜 賢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주제어 : 일제시대,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건축사학, 건축문화재 보존

1. 서론

1-1. 연구목적

한국 건축사의 출발을 장식하였던 關野貞에 대한 연구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모두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연구는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며,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 많은 수가 미술사학자들에 의한 연구여서¹⁾, 그가 한국건축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건축 분야에서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말할 수 밖에 없다²⁾.

한편 일본 건축사학계에서의 關野貞에 대한 연구는 보다 활발한 편이다. 우선 동경대학 건축사 교수를 역임한 稻垣榮三에 의해 연구³⁾가 있으며,

또 동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의 早乙女雅博에 의해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⁴⁾가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연구⁵⁾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關野貞 관련 자료의 성격 규명과 소개, 자료를 통한 분석 연구, 그리고 조선 고적조사의 의의 등에 관련된 연구들이다.

한편 이러한 연구와는 별도로 단행본으로 關野克이 저술한 평전⁶⁾이 있으며, 최근 藤井惠介, 早乙女雅博 등이 참여하여 關野貞 컬렉션 야장 목록이 정리되어 발간됨으로써⁷⁾ 연구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1) 관야정에 대한 미술사학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문명대, 「한국미술사학의 이론과 방법」, 열화당, 1977
 유홍준·이태호, 「한국미술사 연구 100년(상)」, 「한국미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 학고재, 1997
 조선미, 「일제치하 일본관학자들의 한국미술사학 연구에 관하여」, 「미술사학 III」, 학연문화사, 1991

2) 한국에서 발표된 건축사 분야에서의 주요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한재수, 「한국건축사학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사학위논문, 1987
 中西章, 「<韓國建築調査報告>에 보이는 關野貞의 韓國建築觀」, 「건축역사연구」 제13권 1호 통권37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4. 3

3) 稻垣榮三, 「關野貞 1867-1935」, 「第17回展示 先驅者の業績」, 東京大學綜合研究資料館, 1980 ; 「中國・朝鮮における建

築遺跡の研究 - 關野貞と建築史學」, 「綜合研究資料館展示解説」, 東京大學綜合研究資料館, 1983 ; 「中國・朝鮮の建築遺品と關野貞」, 「UP」 77, 東京大學出版會, 1979.3

4) 早乙女雅博, 「三國時代江原道の古墳と土器 - 關野貞資料土器とその歴史的意義」, 「東京大學文學部朝鮮文化研究室紀要」 第4號, 1997 ; 「關野貞の朝鮮古蹟調査」, 「東京大學創立百二十周年記念東京大學展-學問の過去・現在・未來 第2部精神のエクスペディション」, 東京大學出版會, 1997

5) 日本建築學會 編, 「近代日本建築學發達史」, 日本建築學會, 1972 ; 韓三建 外, 「1902年から1910年までの關野貞による韓國建築調査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 1994.9

6) 關野克, 「建築の歴史學者 關野貞」, 上越市綜合博物館, 1978

7) 藤井惠介・早乙女雅博・角田眞弓・李明善, 「東京大學綜合研究博物館 所藏 關野貞コレクションフィールドカード目録」, 東京大學綜合研究博物館, 2004

우선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내용들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문제는 그의 저술 근거에 흐르는 사관(史觀)의 비판에 많은 연구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발생한다. 이것은 그에 대한 연구가 저술에서 보이는 '반도적 성격론', '정체성론', '일선동조론' 등 식민주의 사관의 비판을 위주로 전개됨에 따라 정작 건축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힘들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의 한국건축사 이해의 체계가 식민주의 사관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영향을 논증하는 방향으로 주로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까 연구의 초점이 주로 사학에서 형성된 관점이 어떻게 그의 건축사 서술 체계의 근거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그 결과 정작 건축관이나 건축사연구방법론과 같은 건축적인 내용들은 사관의 틀러리로 변모되어 그가 한국건축사상에서 갖는 함의와 같은 보다 진전된 논의를 전개하기 힘들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식민주의 사관은 어차피 왜곡된 인식의 결과로서 극복의 대상이며 계승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태도는 한편으로는 왜곡된 건축사 인식을 교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그 반대로 해방 이후의 건축사학의 전개를 일제시기와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문제점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우선 사관의 측면에서 당시 유럽에서 발흥하여 일본에 강한 영향을 주었던 실증주의 사관과의 영향관계에 대한 해명의 부족을 야기하였으며⁸⁾, 더 나아가 그의 연구가 후대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학문적 접근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점에서 일본측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그것이 사관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일정 정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關野貞에 대한 연구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본 연구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건축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關野貞의 활동에서 그의 건축사 연구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關野貞이 연구가 매우 실천적인 문제인 건축문화재

보존과의 관련성하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초기 關野貞의 건축사 연구방법을 검토하고 한국건축사에 대한 그의 태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보존과의 관련성을 추상적인 상태로 언급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으나⁹⁾ 본고에서는 이것이 關野貞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가 최근 일본에서 나온 바 있다. 이것은 한국의 건축문화재 보존성립과정을 건축문화재의 개념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한 이명선의 논문¹⁰⁾과 일본에서의 건축보존개념의 생성을 다룬 清水重敦¹¹⁾의 논문이다. 두 논문 모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남기고 있는데, 우선 이명선의 논문에서는 건축문화재라는 개념의 생성을 논하면서 關野貞의 한국에서의 조사가 한국의 건축문화재 보존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였다. 清水重敦의 논문은 건축보존의 개념형성과정을 논하는 가운데 關野貞의 나라현에서의 활동과 수리방침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시도하여 매우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한국과 일본 양쪽 중 한 곳에서 만의 활동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어 關野貞의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關野貞의 일본에서의 활동과 한국에서의 활동을 연속선상에서 분석하고자 하며, 이러한 작업은 시각의 전환을 통해 후속 일본인 건축사가들과, 더 나아가 해방 이후 한국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국건축사 연구와의 연관관계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우선 초창기 일본에서의 건축사와 건축문화재 보존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특히 關野貞의 이력에서 건축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부분을 고찰한 후 건축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활동들이

9) 일본의 연구에서도 이 점이 지적되어 논의된 바가 있으나 한국건축사까지 연결시켜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日本建築學會編, 앞의책, 1,692쪽.)

10) 李明善, 「韓國における建築文化財成立過程の研究」, 東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03

11) 清水重敦, 「日本近代における建築保存概念の生成に關する研究」, 東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04

8) 조선미의 연구에서 일본에서의 당시 상황에 대해 '실증주의 사관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방법상의 기술적인 면만을 받아들여 실증주의라는 명목하에 사료의 집적만을 결과하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조선미, 앞의글, 105쪽.)

그의 건축사 방법론이나 건축사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적해 봄으로서 그의 건축사에 대한 태도를 고찰하여 한국에서의 활동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한국에서의 초기 조사 활동과 조사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이 한국의 건축문화재 보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추적하여 봄으로서 그의 건축사 연구방법론과 한국의 건축문화재 보존의 연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 시기는 일본에서 건축사연구가 시작되는 1890년대로부터 關野貞이 한국건축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집필하여 한국건축문화재 보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1910년대 중반까지를 대상시기로 하고자 한다. 그 이후의 일제시대 건축문화재 보존에 대해서는 關野貞 이후 한국건축사 연구에 종사하는 2세대 일본학자와 수리공사 관련 기술자들, 즉 藤島亥治郎, 杉山信三, 米田美代治, 小川敬吉 등의 활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초기 關野貞의 활동에 대해서 초점을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일본의 건축사학 성립과 건축문화재 보존

2-1. 건축사학 발달과 건축문화재 보존

일본의 명치 정부는 부국강병을 위한 산업 발전을 서둘러 공업과 교육에 국력을 기울였으며,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1873년 공학료(工學寮)를 설치하고, 1875년에는 공학료에 조가학과를 설치하여 근대적인 건축교육을 시작한다. 1877년 1월 관제개혁에 의하여 공학료가 공부대학교가 되었는데, 본격적인 일본건축사 연구는 공부대학교 조가학과 최초 졸업자 중의 하나인 辰野金吾가 영국 유학 후 1884년 12월 공부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이후 가능해진다. 그것은 최초로 일본인에 의한 건축교육이 시작되면서 특히 그의 유학 중 경험을 통해 일본 건축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그는 1889년(명치 22)에 전통 장인 출신으로 당시 궁내성내장료(宮内省内匠寮)의 기수(技手)였던 木子清敬(1844-1907)을 영입, 일본건축에 대한 교육을 독립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교육을 받고 일본건축사학의 효시라 할 수 있는 伊東忠太와 關野貞이 각각 1892년과 1895년 졸업, 건축사 연구 활동을 시

시기	명칭
1871(明治 4)	古器舊物保存方
1880~94 (明治13~27)	古社寺保存金交付制度(内務省)
1888~97 (明治21~30)	壬時全國寶物取調局(宮内省)
1897 (明治30)	古社寺保存法
1919(大正 8)	史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法
1929(昭和 4)	國寶保存法
1933(昭和 8)	重要美術品等の保存に關する法律

표 2. 일본의 문화재보호 관련법 변천

작하면서 본격적인 일본건축사 연구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의 문화재 보존은 명치유신 때의 신불분리(神佛分離)에 의한 폐불훼석(廢佛毀釋)의 영향으로 많은 사찰 관련 문화재들이 파괴되는 상황에 이르자¹²⁾, 1871년(명치4) 고기물(古器物) 보호에 대한 태정관포고로 <古器舊物保護方>이 포고됨으로서 시작되어 문화재 보호 제도의 효시를 이루었으나, 당시 건조물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후 1880년(명치13)부터 내무성에서 전국의 주요한 신사와 사찰에 고사사보존금을 주어 보존수리에 사용하게 하여 건조물 보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처음 마련되었으나, 이 때의 보존금 제도는 유지 관리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근대적 의미에서의 건축문화재 보존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신사나 사찰의 건축에 대한 조사와 보존이 이루어짐으로서 최초의 근대적 개념에서의 건축문화재 보존이 가능해지는 것은 1896년이 되어서이다. 이는 1888년 9월에 궁내성에 임시전국보물취조국(臨時全國寶物取調局)이 설치되어 岡倉天心에 의해 전국 사사(社寺) 소장 미술공예품에 대한 조사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건축물에 대한 조사는 없다가, 동경제대 졸업 후 건축사 연구의 효시를 이루게 되는 伊東忠太가 취조국에 임시감사로 위촉되게 되는 1896년에서야 건축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이루어져 '조사-지정-보존¹³⁾'이라는 체계적 보존의

1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辻善之助의 『岩波講座 日本歴史 - 廢佛毀釋』(岩波書店, 1935)을 참조할 것.

13) 건축문화재 보존의 가장 일반적 절차는 '조사', '지정', '보존'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보존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가 가장 먼저 선행하는데, 이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치평가가 목적이다. 가치평가가 이루어진 후에는 '지정' 또는 '등록' 등을 통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보존 대상이 된 건축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伊東忠太는 당시 임시보물취조국 조사사업에 참여하기 이전 아래와 같은 글을 발표하여 국가가 고건축물의 보존에 나설 것을 주장하는 등 이미 건축물의 보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고건축물의 보존

무릇 가람 전당의 보존을 필요로 한다함은 단지 국가의 문화를 장점(裝点)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역사를 증거하는 자료이며, 우리는 황통을 이어 온 강한 국가인 바 역사의 증인으로 부족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존함으로써 세계에 우리나라의 오랜 국가됨을 자랑함은 얼마나 의미있는 일인가, 고로 국가는 상세한 설명만이 아니라 최고의 문화를 열불수 있는 역사적 유해와 요증 사람으로서 선조의 유덕을 흠모하는 물품을 전래하는 것이므로 정부로서 그 안을 내고, 의회는 이 안을 제출하여 신사와 사찰의 보존을 꾀하는 건축미술을 모범으로서 그 유적을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적 관점을 함양하는 길을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급무일 것이다.¹⁴⁾

한편 關野貞의 경우에는 1895년 대학 졸업 후 얼마 안 있어 伊東忠太의 권유로 1896년 12월 나라현의 기사로 부임, 건축문화재 수리를 담당하게 되어 건축문화재 보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앞에서 일본에서의 건축사학 발달과 건축문화재 보존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았지만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일본에서 건축사 연구가 시작되는 초기 그와 거의 동시에 건축문화재 보존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伊東忠太나 關野貞과 같이 건축사 연구의 시초를 장식하는 연구자들이 건축문화재 보존에 매우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일본 건축사의 초기 연구자들이 시작부터 직간접으로 건축문화재 보존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연관관계는 그들이 건축사 연구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거나 방법론을 고민할 당시 건축물 보존이라는 분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2-2. 關野貞과 건축문화재 보존

지금까지 關野貞의 활동 중 주로 한국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보통 1902년 한국건축 조사부

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활동이다. 그러나 關野貞의 활동에 대한 보다 진전된 이해를 위해서는 그 이전 그의 이력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간략히 그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1895년 동경제국대학 공학부 조가학과를 졸업 후 그의 스승이었던 辰野金吾 밑에서 잠시 일본은행의 공사에 참가하였다가 그 후 1896년 3월 사임하고, 미술학교의 강사로 건축 장식 및 제도를 강의하였다. 1896년 12월 伊東忠太의 권고에 의해 나라현에 기사로 부임하고 고사사보존계획 및 수리공사감독을 담당하며, 동시에 고사사보존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¹⁵⁾. 그러므로 1896년은 그가 생애 처음으로 건축사 연구에 투신하게 되는 계기가 된 해이며 이때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건조물문화재의 수리공사를 담당하는 기사였다는 점은 그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점이라 생각된다.

(1) 조사와 등급부여

關野貞은 나라현에 부임후 6개월이 지난 1897년 6월 제1회 복명서를 나라현지사에게 제출한다. 여기서 그는 6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사(社寺) 350여건을 조사하고 그 중 약 80건의 건축사적 가치, 예술적 가치를 평가하여 5등급으로 나누어 보고하였다¹⁶⁾.

關野貞의 경력에서 이 당시 보고는 나라에 있는 건축문화재 보존의 기초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건축사의 체계 정립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완료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조사가 건축문화재 보존에서 지니는 의미는 ‘조사’와 그에 따른 ‘대상건축물의 가치평가’가 보존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關野貞의 조사가 단순한 학술적 목표로부터 실시된 것이 아니라 건축문화재 보존이라는 실천적 목

15) 藤田亮策, 「略歴」, 『朝鮮と建築』第14輯 第10號, 1935. 10, 14~15쪽.

16) 건축물의 가치평가 기준이 일본에서 초기 어떻게 정립되었는가를 알기 위해 <고사사보존법>에서의 특별보호건조물 지정 기준을 참조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첫째, 역사의 증거가 되는 건조물, 둘째, 미술의 모범이 되는 건조물(제작이 우수한 것), 셋째, 유서(由緒)가 특수한 건조물이었다 즉 ‘역사적 가치(historic value)’와 ‘예술적 가치(artistic value)’가 주요한 판단기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古社寺保存便覽』, 東京最勝閣, 1903, 16쪽.)

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수리 등의 ‘가치 보존행위’가 시행된다.

14) 伊東忠太, 「國家は古建築物を保存すべし」, 『建築雜誌』No.98, 1895.2 (日本建築學會 編, 앞의책, 1,555쪽에서 재인용)

표와 매우 밀접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그가 나라의 건조물들에 대해서 실시하였던 연대판정이 뒷날 거의 수정이 없을 정도로 매우 정확하였고, 이러한 연대판정이 건축사의 체계를 정립하는데 매우 공헌이 컸다고 평가되었는데¹⁷⁾, 이로 보아 關野貞은 이 당시에 이미 일본건축의 대체적인 양식적 편년 체계를 거의 수립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關野貞에게서 건축문화재 보존을 위한 고건축 조사와 건축사의 체계 정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상호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말해 준다.

(2) 수리공사와 연대판정

關野貞은 1896년 12월 나라현 기사 부임 이후부터 1901년 9월 동경제국대학 공과대학 조교수로 가기까지의 약 5년간을 나라현 기사로 있었는데, 이 당시 나라현에는 중요한 수리공사들이 진행 중이었다. 關野貞이 담당하였던 주요한 수리공사로는 1897~98년에 신약사사본당(新藥師寺本堂), 법기사 3중탑(法起寺三重塔), 당초제사 금당(唐招堤寺金堂), 약사사 3중탑(藥師寺三重塔) 등의 해체수리가 있으며, 그 외에도 추소사본당(秋篠寺本堂), 동대사법화당(東大寺法華堂), 흥복사오중탑(興福寺五重塔), 실생사오중탑(室生寺五重塔), 신약사사종루(新藥師寺鐘樓) 등의 공사를 담당하였다¹⁸⁾.

그 중 대표적인 수리공사 몇 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약사사본당(新藥師寺本堂)은 정면 7칸, 측면 5칸의 건물로 나라시대 말기 건립된 것인데, 수리는 1897년(明治30) 1월 착공하여 1898년 4월 완성하였다. 이 건물은 중세 수리에 의해 정면에 맞배지붕의 예당이 덧붙여 있었으며 내부는 본체에 우물천장이 설치되어 있고, 수미단 전면도 개수되어 주위의 여러 곳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다. 당시 수리를 할 때 후세에 보충가공한 부분은 모두 철거하였으며 원래의 형식으로 복원하였다¹⁹⁾.

법기사 삼중탑(法起寺三重塔)은 1896년 2월에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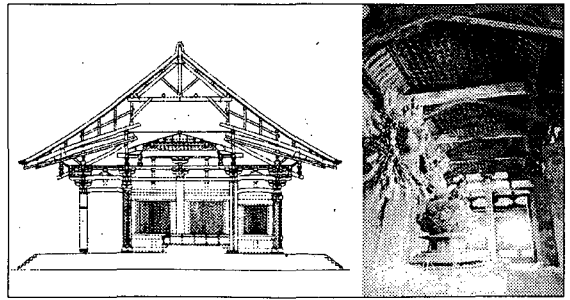


그림 1. 당초제사금당 수리전(사진)·수리후(도면)
(獨立行政法人文化財研究所, 『A0の記憶』, 飛鳥資料館, 2002에서 재인용)

존금이 교부되어 다음 해 3월에 착공하고, 1898년 9월에 해체수리를 완료하였다. 건물은 완전 해체되었으며 이 때 상당히 많은 부재들이 교체되었다. 초석이 교체되지는 않았지만 기단 주위의 적석을 다시 쌓고 심주의 중간부분을 교체하였으며, 상륜도 대부분을 다시 주조하였다. 초층 내부의 후대 첨가된 바닥을 철거하였기 때문에 문입구를 개조하였으나 주칸이 3칸으로 고쳐진 3층은 2칸으로 복원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하고 후대 보충된 인방도 남기는 등 수리전의 상황을 많이 남겨둔 편이었다²⁰⁾.

당초제사 금당은 역시 1896~98년에 보존금이 교부되어 수리되었는데 지붕의 형태, 마감 등도 그대로이나 지붕가구는 새로운 양식 목구조를 채용하여 고쳐졌다. 수리 전에는 외진주부터 내진대들보 밑으로 큰 방장(方丈)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도 철거해 버렸다²¹⁾.

關野貞이 관련되어 있었던 이러한 수리공사의 내용들을 보면 ‘원형’과 ‘후세에 첨가된 부분’에 대한 판단이 공사의 주요한 내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근대적인 건축수리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의 수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중요하고 오래된 고건축물들의 경우 여러 번의 수리를 거쳤는데, 수리를 할 때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없었으므로 수리할 당시의 기법과 기술을 적용하여 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수

17) 岸熊吉, 「關野先生と大和の古社寺」, 『夢殿』 14(太田博太郎, 『建築史の先達たち』, 彰國社, 27~28쪽에서 재인용)

18) 藤井恵介・早乙女雅博・角田眞弓・李明善, 『東京大學綜合研究博物館 所藏 關野貞コレクションフィールドカード目録』, 東京大學綜合研究博物館, 2004, 2쪽.

19) 伊藤廷男等, 『新建築學大系 50 - 歴史的建造物の保存』, 彰國社, 1999, 207~208쪽.

20) 『法起寺三重塔修理工事報告書』; 伊藤廷男等, 앞의 책, 207~208쪽.

21) 伊藤廷男等, 앞의 책, 207~20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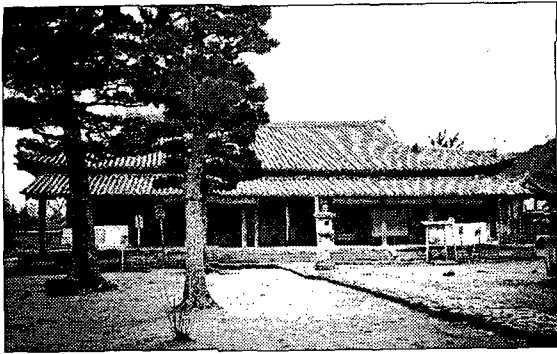


그림 2. 신약사사본당 수리전 정면
(獨立行政法人文化財研究所, 앞의책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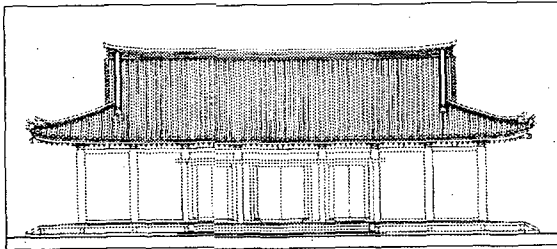


그림 3. 신약사사본당 수리후 정면
(獨立行政法人文化財研究所, 앞의책에서 재인용)

리공사에서는 많은 부재의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더 나아가 이 때 부재에 적용된 형상이나 기법은 창건 당시의 것이 아니라 수리가 이루어지던 당시의 것이 적용되었다²²⁾. 한편 주로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고재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것도 재료의 재사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일뿐 특별히 보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고건축물은 단일한 한 시대의 양식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드물며 대부분 여러 시대의 양식들이 혼재하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와는 달리 건축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수리공사를 시행해야 할 때 그 건물의 '원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 더 나아가 '당초의 것'과 '후세에 추가된 것'을 구분해 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될 수 밖에 없었다. 즉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양식적년대판단'

22) 이러한 현상은 일본과 한국이 동일하다. 일례로 김계 귀신사 대적광전(歸信寺 大寂光殿)의 경우 1800년대 수리시 공포를 수리하면서 고재는 전부 후면 공포 제조법에 사용하였고 전면의 공포는 신재를 이용 당시의 형식으로 만들어 두 시기의 부재가 혼재되어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고건축 제25호』, 2003, 31~32쪽.)

은 근대적 건축문화재 보존이 정립되기 시작할 무렵의 수리공사에서 매우 실천적 중요성을 띠고 건축사연구자들에게 당면과제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수리공사의 감독으로 참여하면서 수리공사 현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關野貞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매우 직접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며, 그러므로 그의 실증적 연구 방법은 이러한 '건축물의년대판단'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연구 주제와의 관계

關野貞에게 있어 '건축물의년대판단' 문제가 매우 중요하였음은 그 후 그가 발표한 논문들을 살펴봐도 알 수 있다. 1896년 졸업논문이었던 「鳳凰堂建築說」을 발표한 이후의 일련의 논문에서 그는년대판정과 관련된 글들을 주로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1898년에는 「東大寺大佛殿蓮座彫刻の年代に就て」, 1900년에는 「古瓦模樣沿革考」, 1901년 「藥師寺金堂及講堂の藥師三尊の製作年代を論ず」, 「古瓦模樣沿革考」를 발표하였으며, 1902년 「天平創立の東大寺大佛殿及其佛像」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그의 연구경향은 그가 초기에 직면하였던 '정확한 년대의 판정'이라는 문제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방법론에 의해 발전된 연구는 이후 문헌사학자들과의 논쟁을 시작하게 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즉 1905년에는 유명한 범룡사 재건비재건 논쟁의 시작을 알리는 「法隆寺金堂塔婆及中門非再建論」을 발표하였으며, 그와 거의 같은 시기에 「法起寺法輪寺兩三重塔の建立年代を論ず」라는 글 등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 문헌사학을 토대로 한 범룡사 재건론의 대표적 논자였던 喜田貞吉이 「記録上より藥師寺金堂三尊を論ず」, 「法隆寺非再建論を駁す」을 발표함으로써 일본 건축사학계의 가장 주요한 논쟁이 시작되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된다²³⁾. 이 논쟁은 '실물연구'와 '문헌연구'의 대립 구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논쟁을 통해 일본건축사의 방법론이 정립되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23) 이 논쟁의 추이에 대해서는 足立康 編, 『法隆寺再建非再建論爭史』, 龍吟社, 1941 ; 村田治郎, 『法隆寺の研究史』, 1949을 참조할 것.

2-3. 關野貞의 연구방법론과 그 의의

關野貞의 연구방법, 즉 엄밀한 고증학적 방법을 주로 伊東忠太와 대비하여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즉 伊東忠太가 주로 '일본건축사의 체계수립'에 흥미를 갖고 있었다면, 關野貞은 보다 엄밀한 고증적 분석을 토대로 연구에 임하였다는 것이다. 伊東忠太는 1892년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서의 연구주제를 일본건축으로 하였다. 이는 서양으로부터 시사 받은 일본 문화유산에 대한 지적 흥미에 의한 것이었으며, 伊東忠太의 관심대상은 특히 일본건축의 본질과 예술적 가치를 해명하는 것이었다²⁴⁾. 그 반면에 關野貞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고 있다.

그의 흥미는 항상 개별적인 자료에 즉하여 전개한다. 대상의 구체성을 떠난 이론체계의 수립, 또는 유품의 매력에 홀린 사변적 고찰에 침잠하는 것 등에 그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한 반면에, 대상을 정확하게 포착하고자 하는 눈은 연마하고 있으며, 관찰한 내용을 도면·스케치·문자·사진으로 옮기는 작업에 습속(習熟)하여 있었다. 관찰의 예민함은 예를 들어 불상을 스케치할 때에 반드시 옷주름의 단면의 곡선을 그리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도 잘 드러나 있다.²⁵⁾

이렇게 초기 일본의 건축사 연구를 주도하던 두 사람의 방법론의 차이는 후배 연구자들의 주류가 關野貞에 의해 주도됨에 따라 일본건축사의 전개방향이 실증주의적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여파는 한국에도 전달되게 된다²⁶⁾. 여기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關野貞의 방법론이 후대 건축사학자들에게 더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그의 연구방법론이 이념적 사변적 경향을 떠나 매우 실천적인 것이라는 점이며,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하던 당시 일본의 상황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서구에서 학문으로서의 건축사가 예술사의 일환으로 체계화된 것은 18세기 말 이래이며, 건축사학의 초기 단계에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발굴 조사하고 문헌자료와 실물 자료(유적과 유구)의 고증학적 연구가 위주가 된 사실 중심의 실증적 단계의 역사였다. 이러한 건축사학의 흐름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플레처(B. Fletcher)와 페르구손

(Fergusson)인데²⁷⁾, 당시 일본에 가장 먼저 소개되어 읽혔던 서양의 건축사 관련 책이 플레처의 『A History of Architecture』와 페르구손의 『History of Indian Architecture』 등이었다는 점은 關野貞의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²⁸⁾.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關野貞이 처한 현실에서 플레처류의 '사실 중심의 실증적 연구'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었다는 점이다. 초기 일본의 건축사에서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던 건축사 체계 정립과 건축문화재 보존을 위한 연대판정의 문제는 고증학적 방법과 절묘하게 부합되었으며 그에 따라 매우 적극적으로 그러한 방법론이 채용되어 이론적 타당성을 뒷받침하여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시 關野貞의 방법은 시대적 조류와 부합하면서 일본의 건축사 정립에 있어서의 현실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론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으며 그것이 일본에서 關野貞의 연구 방법이 주도적인 것으로 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었다고 판단된다.

3. 한국에서의 關野貞활동과 건축문화재 보존

3-1. 關野貞의 한국건축조사 시기구분

關野貞은 1902년 최초로 한국건축 조사를 시작한 이래 동경제대를 정년퇴임한 이후까지도 계속적으로 한국건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그의 한국건축문화재 조사를 그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27) 강 혁, 「서구 근대 건축사의 기술과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론, 1992, 40쪽.

28) 아래 표와 같이 플레처와 關野貞의 건축사 서술체계는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실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구분	A History of Architecture on the comparative method	「韓國建築調査報告」
내용 구성	1. Influences	서언
	I. Geographical	제1편 총론
	II. Geological	1. 지세
	III. Climatic	2. 지질
	IV. Religious	3. 기후
	V. Social	4. 역사
	VI. Historical	5. 종교
	2. Architectural Character	6. 사회
	3. Examples	7. 형식의 분류
	4. Comparative Analysis	제2편 신라시대
	5. Reference Book	제1장. 총설
		제2장. 도성
		- 하략 -

24) 일본건축학회 편, 앞의책, 1,689쪽.
 25) 稻垣榮三, 「中國·朝鮮における建築遺跡の研究 - 關野貞と建築史學」, 『綜合研究資料館展示解説』, 東京大學綜合研究資料館, 1983(우동선 글에서 재인용)
 26) 김동욱, 「20세기 건축사학의 전개」, 『한국건축사연구 1 - 분야와 시대』, 발언, 2003, 25쪽.

시기		조사지
1기	1902. 6.27~9.5 (관명)	도쿄(東京)-고베(神戸)-부산, 마산포, 목포, 군산-인천-경성(京城)-(경기도) 개성(開城)-풍덕(豊德)-인천(仁川)-경성(京城)-인천(仁川)-부산(釜山)-(경상남도) 동래(東來)-양산(梁山)-합천(경상북도) 경주(慶州)-영천(永川)-대구(大邱)-가야산(伽倻山)-칠원(漆原)-마산포-부산-나가사키(長崎)
	1차 1909. 9.19~12.21 (탁지부 건축소)	경성(京城)-개성(開城)-(황해도) 황주(黃州)-(평안남도) 평양(平壤)-의주(義州)-안주(安州)-영변(寧邊)-(경기도) 광주(廣州)-양주(楊州)-강화(江華)-수원(水原)-(충청남도) 공주(公州)-온진(恩津)-부여(扶餘)-(경상북도) 대구(大邱)-영천(永川)-경주(慶州)-(경상남도) 울산(蔚山)-양산(梁山)-부산(釜山)
	2차 1910. 9.22~12.7 (조선 총독부)	경성(京城)-개성(開城)-(평안남도) 평양(平壤)-경성(京城)-(충청북도) 옥천(沃川)-보은(報恩)-(경상북도) 성주(星州)-(경상남도) 합천(陜川, 海印寺)-고령(高靈)-창녕(昌寧)-영산(靈山)-함안(咸安)-진주(晉州)-하동(河東)-(전라남도) 구례(求禮)-곡성(谷城)-옥과(玉果)-장평(昌平)-광주(光州)-남평(南平)-능주(綾州, 多塔峯)-나주(羅州)-목포(木浦)-영암(靈巖, 道明寺)-해남(海南)-(전라북도) 군산(群山)-진주(全州)-금주(金溝, 金山寺)-익산(益山)-경성(京城)
	3차 1911. 9.11~11.7 (조선 총독부)	신바시(新橋)-경성(京城)-개성(開城)-(평안남도) 평양(平壤)의 용강(龍岡), 강서(江西), 강동(江東), 성천(成川), 봉산(鳳山)-경성(京城)-(경상북도) 대구(大邱)-경주(慶州)-대구(大邱, 桐華寺)-부산-신바시(新橋)
2기	4차 1912. 9.18~12.12 (조선 총독부)	경성(京城)-평안남도 강서군(江西郡)-황해도 봉산군(鳳山郡)-경기도 광주(廣州)-경성-강원도 춘천(春川)-양구(楊口)-금강산(金剛山)-고성(高城)-간성(杆城)-양양(襄陽)-강릉(江陵)-평창(平昌)-원주(原州)-경기도 여주(驪州)-충청남도 충주(忠州)-단양(丹陽)-경상북도 풍기(豊基)-순흥(順興)-춘양(春陽)-예안(禮安)-안동(安東)-예천(醴泉)-함창(咸昌)-상주(尙州)-의성(義城)-의흥(義興)-영천(永川)-부산(釜山)

표 4. 關野貞의 1902~12년 한국건축 조사기간 및 경로 (1913년 이후의 조사는 藤田亮策, 『朝鮮の古蹟調査と保存の沿革』 [『朝鮮總攬』, 朝鮮總督府, 1933, 1,039-1040쪽], 早乙女雅博, 『關野貞의朝鮮古蹟調査』, [『東京大學創立百二十年記念東京大學展-學問の過去・現在・未來 第2部精神のエクスペディション』, 東京大學出版會, 1997]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주로 고고학적 내용이 많고 건축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생략함)

우선 제1기는 1902년 관명을 받아 실시한 조사로, 대체적인 체계의 수립에 초점을 맞춘 조사였다.

제2기로 분류되는 조사는 1909년 탁지부건축소의 촉탁을 받아 시작된 조사로 합방 이후인 1915년 정도까지 이루어진 조사이다. 이 조사 중 특히 1912년까지의 조사에서 건축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에 대해서는 매년 간략한 개설과 함께 목록을 작성하여 조사보고서로 간행되었는데, 한국의 전 지역에 소개하는 고건축을 망라하는 조사로 일제조사의 성격을 띠는 조사였다.

제3기는 제2기의 조사를 토대로 하여 1916년 <고적금융물보존규칙> 및 <고적조사위원회규정> 등이 제정되어 제도적으로 정비된 이후에 이루어진 조사이다. 특히 1916년에는 5개년 조사계획

이 수립되어 전년에 비해 보다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이 때부터 이루어진 조사는 주로 고대유적의 발굴 쪽에 치중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언급을 생략하기로 한다.

3-2. 제1기 한국건축조사(1902년)와 의의

1902년의 조사는 주지하다시피 빠른 시간 내에 한국건축의 윤곽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진행되었으며²⁹⁾, 짧은 조사기간의 한계 때문에 당시 경성, 개성, 경주 등의 일부 고도를 중심으로 한 극히 제한된 조사만이 이루어졌다. 이 조사 결과는 1904년 8월 『東京帝國大學工科大学學術報告 第6冊』으로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의 특징 중 중요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로는 최초의 조사 보고서인 이 책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은 비교사적 관점에 기초하여 한국건축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는 불국사를 평가한 것으로 일본 건축과의 비교사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락조(寧樂朝)의 사원 규모와 대부분 동일하다는 것이다. - 즉략 - 나는 여기서 신라조 사원의 평면은 일본의 나라조의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대개 나라조 사원의 규모는 당(唐)의 사원과 태반이 그대로 모방하는 것으로서 신라도 역시 그랬던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비교사적 방법은 關野貞이 빠른 시간 내에 한국건축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따라 일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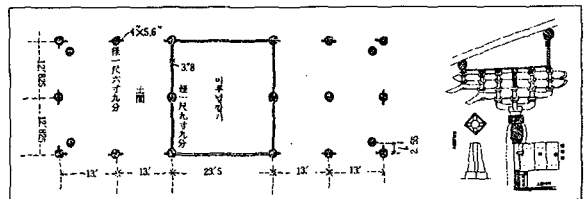


그림 4. 關野貞 스케치 (경성남대문) (강봉진 역, 關野貞, 『韓國의 建築과 藝術』, 산업도서출판공사, 1990, 196~197쪽.)

29) 당시 학장인 辰野金吾의 특별히 이르기를 '한국건축의 사적(史的)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또 말하기를 될 수 있는대로 넓게 관찰하라, 깊지 않더라도 관계없다고 하였다'라고 하여 대체적인 체계 수립에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강봉진 역, 『韓國의 건축과 예술』, 산업도서출판공사, 1990, 36쪽.)

축적한 양식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건축의 시대편년과 양식적 가치 판단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학자에 의해 한국건축이 연구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였다.

두 번째는 당시 조사의 뚜렷한 한계에 의해 불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³⁰⁾ 한국 건축에 대한 최초의 사적 체계 구축을 시도하여 한국건축에 대한 통사적 서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당시 대체적인 사적 개관에 치중하라는 辰野金吾의 지시를 따라 개별적 유물에 대한 엄밀한 고증적 연구를 선행하여 하지 않고 대체적인 체계 구축에 주력하였다는 것이며, 일본의 연구자들이 關野貞 연구방법론의 미덕으로 강조하고 있는 '실물에 즉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역사관의 틀에 실물을 맞추는 형식으로 한국사의 체계가 구축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일본의 건축사가가 그를 평가한 다음의 글은 그런 의미에서 關野貞이 시행했던 한국 건축 연구에는 전혀 적용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결코 체계화를 서둘리지 않고, 정확한 자료가 풍부해짐에 더불어 저절로 역사의 전체상이 보여져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중략- 關野貞의 업적은 철저한 모노그래프로 시종함으로써 동양미술사의 광범한 체계 가운데 오로지 그 기초를 쌓은 점에서 찾아질 것이다³¹⁾.

또한 이 때에 정립된 건축사 인식체계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中西章이 지적한 것처럼 '그 당시 일본이 가진 기본적인 한국 인식에 크게 영향을 받아 편견에 찬 평가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³²⁾, 이러한 편견이 뒤에서 교정할 제2기의 조사에서도 교정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그가 1923년 조선사강의의 일환으로 실시한 강의를 모아 1932년 발간한 『朝鮮美術史』에서도 기본적인 시각은 변모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1904년 보고서에서 확립된 한국건축사에 대한 기

본적인 시각은 그의 『조선미술사』에까지도 연속되고 있다. 다만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일의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그는 보다 자세한 시대구분을 실시하고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초기에 수립한 체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즉 이 조사보고서는 불충분한 조사에서 이루어진 개략적인 체계 수립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후대의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 당시의 조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韓國建築調査報告(1904)	韓紅葉(1910)	朝鮮美術史(1923 1932)
신라시대 : 漢 이후 唐代의 영향 - 1기 : 漢나라의 영향 - 2기 : 六朝의 영향 - 3기 : 唐나라의 영향	제1기 삼한시대	발생기 : 상대 ① 낙랑군 B.C.108 - A.D. 313년
	제2기 삼국시대	② 고구려 668년 ③ 백제 663년 ④ 가야 562년 ⑤ 고신라 653년
	제3기 신라통일시대	유성기 : 통일신라시대 654-935년
고려시대 : 宋元의 영향	제4기 고려시대	전성기 : 고려시대 918-1392년
조선시대 : 明清의 영향	제5기 조선시대	쇠퇴기 : 조선시대 초기 1392-1591년 후기 1592-1910년

표 5. 關野貞의 주요저서에서의 시대구분 변천

3-3. 제2기 한국건축조사(1909-12년)와 그 의의
제2기 조사는 한일합방 직전인 1909년 당시 탁지부건축소에서 새로운 관청 시설 확보를 위한 기존 건물의 개량 등이 논의되었을 때, 그에 따른 고건축의 훼손 우려 의견이 있어 고건축의 보존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³³⁾ 조사는 탁지부건축소 고문이었던 妻木賴黃이 당시 탁지부장관 荒井賢太郎에게 關野貞을 추천하여, 탁지부건축소의 촉탁으로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關野貞의 요구에 의해 谷井濟一, 栗山俊一도 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關野貞은 1909년부터 1913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건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1902년의 불충분한 조사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조사는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의 각지를 망라하고 있으며 그 대상도 목조 및 석조건축, 고적, 유물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었다.

30) 실제 이 보고서에는 주로 사진을 위주로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스케치도 매우 간략한 초보적인 단계의 스케치들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31) 稻垣榮三, 「中國・朝鮮における建築遺跡の研究 - 關野貞と建築史學」, 『綜合研究資料館展示解説』, 東京大學綜合研究資料館, 1983, 48쪽. (우동선 글에서 재인용)

32) 中西章, 앞의논문, 32쪽.

33) 小川敬吉, 「古跡に就いての回顧」, 『朝鮮と建築』, 第16輯 11號, 1937. 11

시대별	총계	목조건축							석조건축				유적			유물 불상, 종, 비등	
		궁궐 전문	성곽 문루	사찰 건축	관아 객사	향교 서원	사묘 제단	누정	기타	소계	석탑	석교	기타	소계	능묘		궁지, 사지등
삼국이전	14											1	1	4	8	12	1
통일신라	72									18	2	16	36	4	2	6	30
고려	35			1					1	5		4	9	2	1	3	22
조선초기	16	4	4	1				1	11	2			2	3		3	
조선중기	2					1			1					1		1	
조선후기	2	2							2								
총계	141	6	4	2		1		1	15	25	2	21	48	14	11	25	53

표 6. 1909-1912년 조사시 '甲'의 등급을 받은 문화재

시대별	총계	목조건축							석조건축				유적			유물 불상, 종, 비등		
		궁궐 전문	성곽 문루	사찰 건축	관아 객사	향교 서원	사묘 제단	누정	기타	소계	석탑	석교	기타	소계	능묘		궁지, 사지등	소계
삼국이전	15													9	6	15		
통일신라	98									41	2	11	54	7	4	11	33	
고려	101			1					1	29		16	45	10	1	11	44	
조선초기	48			5	3	11	1		22	5			5	1		1	20	
조선중기	100		2	32	7	10	8	1	4	64	1		3	4	1		32	
조선후기	48	5	3	20	5	1	1	3	38					1		1	8	
총계	410	5	5	58	15	22	10	4	6	125	76	2	30	108	29	11	40	137

표 7. 1909-1912년 조사시 '乙'의 등급을 받은 문화재

시기별	총계	목조건축							석조건축				유적			유물 불상, 종, 비등		
		궁궐 전문	성곽 문루	사찰 건축	관아 객사	향교 서원	사묘 제단	누정	기타	소계	석탑	석교	기타	소계	능묘		궁지, 사지등	소계
1909	289	12	13	81	19	17	15	9	3	169	22	4	14	40	22	3	25	55
1910	410	3	13	114	44	42	18	4	1	239	34	1	26	61	6	9	15	95
1911	133	-	2	27	14	22	-	-	2	67	12	2	2	16	20	8	28	22
1912	477	-	3	182	28	53	9	8	10	293	52	-	16	68	6	3	9	107
총계	1,309	15	31	404	105	134	42	21	16	768	120	7	58	185	54	23	77	279

표 8. 1909-1912년 건물유형별 조사건수

매년의 조사는 9월에서 12월 사이 2~3달간에 걸쳐 시행되었다. 당시 조사에 대해서는 신문에도 계속적으로 게재되어 이 당시의 조사사업이 일반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34).

당시 조사된 건축물의 수는 보고서가 간행된 1912년까지의 것만 하여도 1,309건에 이르러 이때 대체적인 건축물의 일제조사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35).

조사내용은 매우 간략한 형태의 보고서로 제출되었는데,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조사 대상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설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등급과 명칭, 시대를 항목으로 한 표로 작성된 조사대상 목록표로 지방별, 시대별의 2가지로 작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이 조사의 목적이 고적 보존이었기 때문이며, 특히 1910년 조사보고에서는 당해연도 조사에서 긴급히 수선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된 익산 미륵사지석탑, 영암 도갑사해탈문(道岬寺解脫門), 광주 읍동5층석탑(邑東5層石塔) 등 6건과 유물 중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화엄사 화엄경 석각 단편(華嚴經石刻斷片) 등 2건에 대한 보고를 추가로 하고 있어 보고서의 그러한 성격은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34) 「關野評論」(대한매일신보, 1909.10.1일자 1면), 「關野博士의 古蹟視察」(매일신보, 1910.10.13일자 2면), 「關野氏社寺視察」(調達季報, 1910.10.31일자 2면), 「關野博士古蹟談」(조달계보, 1910.12.19일자 3면), 「古建築物의 保存」(매일신보, 1911.4.22일자 2면), 「古建築物保存」(조달계보, 1911.4.27일자 2면) 등 關野貞의 고적조사에 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신문에 소개되고 있었다.

35) 關野貞의 조사카드 목록을 보면 1913년에도 함경남도, 평안남도, 강원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을 알 수 있어 1913년 이후에도 조사를 지속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1913년 이후의 조사는 별도의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아 1912년에서의 조사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藤井惠介·早乙女雅博·角田眞弓·李明善, 「東京大學綜合研究博物館 所藏 關野貞

コレクションフィールドカード目録」, 東京大學綜合研究博物館, 2004)

시대	소계	구분	건수	건물명
삼국이전	-	-	-	-
통일신라	-	-	-	-
고려	1	사찰건축	1	부석사무량수전
조선초기	11	궁궐전문	4	창경궁명정전, 명정문, 홍화문, 창덕궁돈화문
		성곽문무	4	경성남대문, 개성남대문, 평양보통문, 의주남문
		사찰건축	1	청평사극락전
		사묘제단	1	평양송인전
		기타	1	강릉오죽헌
조선중기	1	향교서원	1	경성문묘대성전
조선후기	2	궁궐전문	2	창덕궁인정전, 경복궁계전문
소계			15	

표 9. '甲'의 등급을 받은 목조문화재

시기	조사보고서
1차 1909.9.19~12.21 (탁지부건축소)	『朝鮮藝術之研究』(朝鮮總督府, 1910) 『朝鮮文化の遺蹟』(1910)
2차 1910.9.22~12.7 (조선총독부)	『朝鮮藝術之研究續編』(朝鮮總督府, 1911) * 『朝鮮文化の遺蹟 其二』(1912.6)
3차 1911.9.11~11.7 (조선총독부)	* 『朝鮮古蹟調査略報告』(1912.6) * 『朝鮮文化の遺蹟 其二』(1912.6)
4차 1912.9.18~12.12 (조선총독부)	* 『大正元年古蹟調査略報告』(1913.5) * 『朝鮮文化の遺蹟 其三』(?) 『朝鮮東部の遺蹟』(『建築雜誌』 第318號, 1913.6)

표 10. 제2기 고적조사 관련 보고서 목록
(*가 붙은 것은 모두 「大正3年9月朝鮮古蹟調査略報告」에 수록)

1909년 이후부터 1912년까지의 조사가 이후의 건축사 연구나 건축문화재 보존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조사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은 보존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간략한 건물에 대한 평가와 함께 등급이 매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등급은 甲乙丙丁의 네 가지로 부여되었는데, 이 목록이 보고서 내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 (甲)은 가장 보존이 필요한 것
- (乙)은 그 다음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
- (丙)은 지금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굳이 보존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丁)은 보존의 필요성이 가장 낮은 것

결국 이러한 평가에 의해 한국의 건축문화재에 대한 가치평가가 완료되었으며, 수리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에서의 최초의 건축문화재 수리인 평양보통문 수리공사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착수가 된 것이며, 그

해에 석굴암석굴 등과 같이 당시 조사에서 甲의 판정을 받은 문화재들 중 수리를 요하는 문화재들이 우선적으로 수리를 받게 되었다.

이 등급부여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한국에 유존하고 있는 목조건축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고 상대적으로 석조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것은 목조문화재가 전체 조사대상 건수 1,309건 중 777건을 차지할 정도로 조사건수에서의 비중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甲으로 판정한 문화재가 단지 18건³⁶⁾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해, 석조문화재의 경우는 전체조사 건수 185건중 48건이 甲의 판정을 받아 매우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자들의 견해는 關野貞이 『한국건축조사보고』에서 이미 고대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조선시대의 건축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³⁷⁾ 일반적이다. 본 연구자도 그 점에 동의하나 그런 평가를 한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점을 더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그것은 일본건축과의 비교사적 측면에서 關野貞이 한국건축을 평가를 하였다라는 점이 이러한 판단의 시발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1910년 關野貞이 쓴 일본의 특별보호건조물 해설 자료를 참조해보면 일본의 경우는 매우 풍부한 목조건축이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꽤 많은 수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목조건축에 대해서는 임란이전의 것이 거의 남아 있지 않

시기	년대	건물
原史時代	6C중반 이전	出雲大社本殿 등 2건
飛鳥時代	6C중반~7C중반	法隆寺金堂 등 5건
寧樂時代	-	藥師寺東塔 등 9건
平安時代	794~1185	室生寺五重塔 등 6건
藤原時代	-	醍醐寺五重塔 등 5건
鎌倉時代	1185~1392	石山寺多寶塔 등 8건
室町時代	1392~1573	興福寺五重塔 등 8건
桃山時代	1573~1603	大德寺唐門 등 9건
江戸時代	1603~1867	東照宮社殿 등 16건
소계		68건

표 11. 關野貞 「特別保護建造物解説」(1910) 수록건물
(『日本の建築と藝術(上)』, 岩波書店, 1940, 409~486쪽.)

36) 사찰건축으로는 부석사무량수전, 청평사 극락전만이 선정되었으며, 궁궐의 전문인 창경궁 명정전, 명정문, 홍화문, 창덕궁 인정전, 돈화문, 경복궁의 계 전문(殿門)이, 성문으로는 승례문, 개성 남대문, 평양 보통문, 의주 남문, 그리고 기타건물로 평양의 송인전, 경성문묘대성전, 강릉오죽헌이 甲의 판정을 받았다.

37) 中西章, 앞의논문, 31~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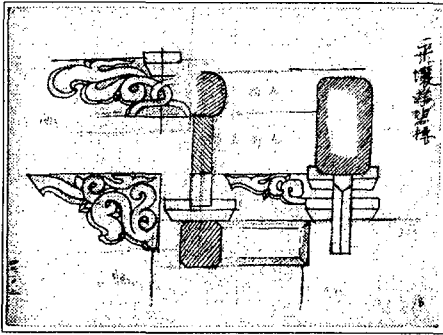


그림 5. 關野貞의 스케치(평양부벽루)
 (藤井惠介 等, 『東京大學綜合研究博物館 所藏 關野貞コレクションフィールドカード目録』에서 재인용)

던 한국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일본학자인 關野貞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와 대비되어 일본에 비해 풍부하게 남아 있던 석조건축물들은 목조건축으로는 밝힐 수 없었던 고대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목조에 대한 저평가와 석조에 대한 관심이 일본건축과의 비교에 의해 형성된 관점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일제시대 초기의 학자들이 왜 석조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하여 준다³⁸⁾.

또한 이 조사 결과는 일제시대 한국의 건축사연구와 건축문화재 보존의 대세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중요하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조사 이후 조선시대 건축에 대한 조사가 당분간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1916년 <고적유물보존규칙> 제정과 함께 한국에서의 체계적·학술적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대의 연구에 치중하게 하였고, 특히 발굴조사에 치중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그에 따라 조선건축에 대한 조사는 소홀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특히 목조건축에 대한 조사는 藤島亥治郎과 같은 신진학자가 등장하기까지³⁹⁾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38) 최초로 한국의 문화재에 대한 글을 남긴 八木獎三郎의 경우에도 1902년 「朝鮮佛塔論」이라는 글을 발표하였으며 關野貞의 경우에도 1903년 「韓國京城廢大圓覺寺石塔婆」라는 글을 발표하는 등 매우 이른 시기부터 일본학자들이 석조물에 대해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그 이후에도 杉山信三의 「朝鮮の石塔」(1944), 고유섭의 「朝鮮塔婆의 연구」(1948) 등의 연구가 일제시대 꾸준히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차수	년도	조사계획	
		대상시기	대상지역
1차	1916	한치군 및 고구려	황해, 평안남북, 경기, 충청북도
2차	1917	삼한, 가야, 백제	경기, 충청남북, 경상남북, 전라남북도
3차	1918	신라	경상남북, 전라남북도
4차	1919	예맥, 옥저, 발해, 여진 등	강원, 함경남북, 평안남북도
5차	1920	고려	경기도
비고		※ 모든 지역 조사시 유사이전 조사 병행. ※ 조선시기는 각 지역 조사시 편의에 따라 행함.	

표 12. 1916년 작성된 고적조사 5개년계획
 (『大正5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17)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일제조사를 끝으로 보다 진전된 조사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리고 한국 고건축의 구조나 기법에 대한 이해 없이 1913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리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문화재의 훼손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초기 조선총독부 기사에 의해 공사가 주로 수행되고⁴⁰⁾, 그에 따라 일본에서와 같은 양식에 대한 체계적 조사 없이 건축문화재가 수리되어 문화재의 수리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결국 일본의 건축전문가로부터 그에 대한 비판의 소리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藤島亥治郎의 다음 글은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보여준다.

근래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물건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적음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결점은 오늘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하나 돌이켜 생각해보건대 특히 목조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재료 및 구조의 성질상 특히 부식되어 없어지는 것이 빠른 부류에 속한다. 현재 조선불사 건축은 현존건축물의 건조년대와 그 후의 수리가 완전하지 못해 조선 전국에 있는 건축물들이 퇴락하여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⁴¹⁾.

세 번째로는 이 조사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 당시 저평가를 받았던 건축문화재에 대한 훼손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석조건축문

39) 藤島亥治郎이 동경계대 졸업논문 작성을 위해 한국에 처음 온 것이 1922년이며, 졸업논문으로 「韓日建築史論」을 쓴 후 1923년 경성고공 건축학과의 조교수로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건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藤島亥治郎 著, 이광로 역, 『韓의 建築文化』, 1986, 19~21쪽.)

40) 초기 고적조사 및 수리공사와 관련 총독부 직원으로 이름이 자주 보이는 사람은 木子智隆, 國枝博, 飯島源之助, 渡邊彰 등이며, 특히 木子智隆은 평양보통문, 석굴암, 김계 금산사 등의 수리를 담당하여 초기 건축문화재 수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건조물 수리관련 문서 내용 참조)

41) 藤島亥治郎, 「朝鮮建築史論 其の一」, 『建築雜誌』 530號, 1930. 2

화재에 비하여 상대적인 저평가를 받았던 많은 목조문화재와 그 외에도 丙과 丁의 평가를 받은 문화재들은 그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보다 진전된 조사연구에 의한 재평가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소실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많은 문화재들이 소실되게 되었다는 점이다⁴²⁾.

4. 결론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關野貞의 건축사 연구 활동에서 건축문화재 보존을 평가할 때 건축문화재 보존이 단순히 건축사 연구의 부산물로 다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는 關野貞의 연구활동이 건축문화재의 보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진행되었으며 그의 건축사 연구 방법론에도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 때문이다. 일본에서 건축사 연구가 시작될 무렵인 1890년대 당시 건축문화재 보존이 매우 실천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있었으며, 關野貞이 선택한 방법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매우 효율적이었다. 초기 건축문화재의 보존을 위해서는 양식사적 연대판정을 통한 건축사의 체계 정립 및 보존의 방법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 關野貞의 연구 방법론이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연대판정의 문제는 關野貞에게 건축사를 시작하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으며, 그의 양식론, 척도론 등의 방법론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므로 關野貞의 연구자로서의 초기에 있었던 수리공사에 대한 경험은 그의 건축사 연구 태도를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라 伊東忠太가 주로 '일본건축의 체계수립'에 치중한 반면, 關野貞은 '실물의 정확한 고증'에 치중하게 한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이렇게 형성된 關野貞의 건축사 방법론이 한국 건축을 바라 볼 때에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902년의 대체적인 조사를 거쳐 1909년부터 시작된 고적 조사는 그의 이러한 방법론의 시험장이었으며, 일

본 건축에 의해 정립된 방법론의 확대 재생산 과정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짧은 조사에 의해 형성되었던 편견의 벽을 넘지 못하여 고증학적 방법에 의한 학문으로서의 건축사 정립에 실패하였다는 점이다.

그 이후 1909년부터 1915년에 이르는 고적 조사를 통해 그의 방법론, 즉 건축사적 연구에 의한 문헌사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실현될 수 있는 계기를 맞으며 그러한 영향으로 실제 그의 대표적 저작에서 많은 부분 한국건축에 대한 많은 부분 편견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편견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적 방법론을 통한 편견의 극복은 한계에 부딪치며 그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조선미술사』에서의 모습이다. 즉 건축 하나 하나의 평가에서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시대를 종합하여 평하는 경우에는 외적인 영향의 사적 사관의 강한 영향을 발견하게 되는⁴³⁾ 것이다.

세 번째는 關野貞의 한국건축문화재 조사는 잘 알려진 것처럼 건축사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는 간과되어왔던 일제시대 한국의 건축문화재 보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그에 의해 1909년부터 1912년 사이의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한국 건축물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는 보존정책 수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그 이후의 조사연구 방향을 고대에 집중토록 함으로써 남아 있던 건축문화재, 특히 목조건축문화재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1931년 『조선과건축』에서 마련한 한국건축보존에 대한 특집좌담회에서의 대화 내용을 보면 그 영향이 얼마나 심각하였나를 알 수 있다.

關野박사가 조선에 오신 것이 고적조사의 최초입니다. 그 때는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명치42년(1909)경부터 이쪽으로 오신 것으로 되었지만 반 이상은 건축을 주안으로 하여 오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명치42, 43, 44, 대정 1, 2, 3년 이때까지는 關野 선생을 수반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전 조선을 천천히 돌아보신 것이며, 아직 보고서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진만은.... 이것도 상당히 없어졌지만 촬영한 목록이 드문 드문 남아 있어서 關野 선생은 그것으로 대체로 대강 마쳤다고 생각하시지 않았나 느껴집니다. 그 뒤를 다시 새로이 추가하여 실행하고자 하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정5년에 지금 중

42) 여상진·심우갑, 「한말 개사건축의 소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권 10호(통권192호), 2004. 10

43) 中西章, 앞의논문, 32쪽.

교과장이 말씀하신 보존규칙이 제정되고서는 주요 묘의 발굴에 주력을 쏟은 것 같아서 그로부터는 거의 고분만인 것 같지만... 그리고 小川기수도 원래 건축전문의 사람이지만 무덤만을 파게 되어(웃음) 오늘까지 그것이 업이 되어 있지만 지금 종교과장의 말씀과 같이 건축의 조사는 대정5년 이후 한 적이 없다. 또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실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요컨대 小川군 한 사람 뿐이니까...⁴⁴⁾

또한 조사의 부족은 건축문화재 보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건축문화재들이 關野貞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수리에 들어갔으며, 조사연구의 부족으로 인한 한국건축 양식에 대한 이해의 결핍은 필연적으로 수리공사의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⁴⁵⁾.

한편 關野貞의 건축등급 분류는 보존의 대상을 선별하여 보존이 되도록 하였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증과 동시에 저평가된 문화재에 대한 훼손이나 철거, 이축 등의 배경이 되어 부정적인 효과도 동시에 미쳤다.

본 연구는 關野貞의 조사연구가 한국건축에 미쳤던 영향을 건축사학적 측면과 건축문화재 보존이라는 측면의 연관관계하에서 파악하려는 초기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가 보다 정밀해지려면 보다 많은 자료의 발굴과 함께 일본 학계와의 진지한 의견교류 및 토론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關野貞, 『韓國建築調査報告』, 東京帝國大學工科大学, 1904
 關野貞, 『東京帝國大學工科大学紀要 第3冊 - 平城京大内裏考』, 東京帝國大學工科大学, 1905
 關野貞·谷井濟一·栗山俊一, 『韓紅葉』, 1909
 關野貞, 『朝鮮藝術之研究』, 朝鮮總督府, 1910
 關野貞, 『朝鮮藝術之研究續編』, 朝鮮總督府, 1911
 關野貞, 『朝鮮古蹟調査略報告』, 朝鮮總督府,
 關野貞, 『朝鮮美術史』, 朝鮮史學會, 1932

關野貞, 『朝鮮の建築と藝術』, 關野博士記念事業會, 岩波書店, 1941
 黑板博士紀念會 編, 『古文化の保存と研究』, 吉川弘文館, 1953
 藤田亮策, 『略歷』, 『朝鮮と建築』第14輯 第10號, 1935. 10
 문명대, 『한국미술사학의 이론과 방법』, 열화당, 1977
 유흥준·이태호, 『한국미술사 연구 100년(상)』, 『한국미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 학고재, 1997
 조선미, 『일제치하 일본관학자들의 한국미술사학 연구에 관하여』, 『미술사학 III』, 학연문화사,
 關野克, 『建築の歴史學者 關野貞』, 上越市綜合博物館, 1978
 太田博太郎, 『建築史の先達たち』, 彰國社, 1983
 日本建築學會 編, 『日本近代建築學發達史』, 日本建築學會, 1972
 藤井惠介·早乙女雅博·角田眞弓·李明善, 『東京大學綜合研究博物館 所藏 關野貞コレクション フィールドカード目録』, 東京大學綜合研究博物館, 2004
 강 혁, 『서구 근대 건축사의 기술과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론, 1992
 伊藤廷男 等, 『新建築學大系 50 - 歴史的建造物の保存』, 彰國社, 1999
 李明善, 『韓國における建築文化財成立過程の研究』, 東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03
 우동선, 『세끼노 타다시(關野貞)의 한국고건축 조사와 보존에 대한 연구 - 문제의 소재』, 『미술과 제도 (2003년 한국근대미술사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3. 10.

44) 1931년 4월 22일 개최된 조선고건축보존 좌담회에서 언급된 내용이다.(『朝鮮古建築保存に觀する座談會(速記)』, 『朝鮮と建築』第10輯 第5號, 1931.5, 2~21쪽.)
 45) 일례로 제주도 관덕정 수리시 서까래의 길이를 과도하게 줄이고, 지붕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등의 오류들이 나타나게 되었다.(藤島亥治郎, 『濟州道の建築』, 『朝鮮と建築』第4輯 第7號, 1925. 7)

Sekino Tadashi and Architectural Conservation in Korea

- focused on the relationship of his methodology of studying
architectural history and architectural conservation in Korea -

Kang, Hyu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bstract

Most of researches in Korea by far on Sekino Tadashi were mainly focused on his historical view only. The main observations of this study, instead, are that; (1) his methodology of studying architectural history was closely related to his previous experiences with the conservation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s in Japan, and (2) his earlier activities in Korea mad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onservation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s in Korea.

Sekino started his carrier after the graduation from the university by participating in the restoration sites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s in Japan, and his experiences at that time had founded the basis of his methodology of studying architectural history. Later, his on-site experiences were also adapted into the conservation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s in Korea when Korea was about to be colonized by Japan. In other words, Sekino's study on the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s started from 1902 had a meaning of not only the starting point of the study on the Korean architectural history but also the starting point of the conservation of the Korean architectural heritages.

Especially, Sekino's study during 1909 1912 prioritized the conservation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s as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and the influences of the study spanned over the entire colonial period by Japan. The influences were that; (1) Sekino's studies in 1909 1912 had outlined the colonial government's policy of the conservation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s, and (2) many restorations were made based on those studies.

Keywords : Sekino Tadashi, Architectural Conservation
